

문헌 연구로서의 경전 연구*

－ 『논어』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강재**

-
1. 들어가면서
 2. 중국의 문헌과 문헌학
 3. 『논어』 연구에 반영된 문헌학
 - 1) 『논어』의 편찬 시기
 - 2) 관중(管仲)에 대한 평가와 삼론(三論)
 - 3) 전래된 『논어』의 판본
 - 4) 공자와 『주역』의 관계
 - 5) 문자학 연구 성과의 반영
 4. 고증학적 학문 전통과 동아시아 고전의 이해
 5. 맺음말
-

■ 국문요약

이 글은 유가 경전 연구에서 문헌학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한 글이다. 중국은 청나라 시기 문헌학이 발달하여 경전의 해석과 연구에 반영되었는데, 이에 비하여 국내의 연구는 대부분 의리 중심의 연구에 머

* 이 글은 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 협동과정 창립 25주년 기념 학술대회(2014.12.3.)에서 구두로 발표한 바 있는 『동양고전학에서 문헌학의 중요성』에서 출발하여, 그 동안의 내 생각과 환경의 변화를 일부 반영하여 수정 작성된 것이다. 또한 2023년 한국경학학회 추계학술대회(2023.11.11.)에서 구두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김도일 교수(성균관대)의 고귀한 의견에서 영감받은 바가 크다.

** 서울대 중문학과 교수 / E-mail : likangqi@snu.ac.kr

물러 있다. 이 글에서는 『논어』의 사례를 들어 문헌학적 성과가 어떻게 경전 연구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논어』의 사례로 이 글에서는 『논어』의 편찬 시기가 편별로 다르다는 것, 관중에 대한 평가에 나타난 모순, 전래된 『논어』의 판본, 공자와 『주역』의 관계, 문자학 연구 성과가 반영된 경전 연구 등을 언급한다. 또한 동아시아 고전연구, 특히 유가 경전 연구에서 고증학적 성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주제어 : 유가경전, 문헌학, 『논어』, 판본, 문자학, 편찬시기, 관중

1. 들어가면서

이 글은 유가의 경전 연구에서 문헌학의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한 사항에 대한 논쟁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¹⁾ 사실 고전연구에서 문헌학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그 중요성을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전통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문헌학적 연구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이는 유가의 경전을 학습할 때 주희(朱熹) 중심의 송학(宋學)에 의존해 왔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송학은 경전의 내면적, 철학적 의미를 중시하는 ‘의리지학(意理之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한대(漢代)에 흥성했던 훈고학(訓詁學)을 자살하게 구절에 대한 이해에 치우쳤다는 ‘장구지학(章句之學)’ 혹은 귀로 듣고 입으로 떠드는 천박한 학문이라는 ‘구이지학(口耳之學)’이라 비하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주희의 학문이 고려 시대 말에 소개된 이후 조선 시대 내내 ‘의리지학’이 모든 학문의 중심이었다.

1) 이 글에는 내가 이전에 문헌학의 성과를 반영하여 『논어』 관련 논문이나 단행본을 내면서 썼던 여러 글에서 가져온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청대(清代)에 이르러 '대단이왕(戴段二王)'이라 부르는 대진(戴震), 단옥재(段玉裁), 왕념손(王念孫)과 왕인지(王引之) 부자의 업적, 또 이를 계승한 유월(俞越) 등에 의하여 크게 발전한 청학(淸學), 즉 고증학(考證學)에서 문헌학적 방법으로 고전을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실학 연구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연구의 방법론에서는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의리지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고증학적 전통의 영향을 깊이 받아 형성된 현대 중국의 문헌학, 청학 중심의 학문적 전통을 살려 고전연구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교토대학(京都大學)을 비롯한 일본의 상황과 다르다.²⁾

이와 같은 상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통 시대 우리나라에 고증학 연구가 가능할 정도의 문헌이 부족했다거나 송학이 관학으로서의 큰 힘을 갖고 있었던 것 등이 언급된다.³⁾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므로 여기서 논외로 할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고전연구의 하나로서의 경전 연구에서 문헌학적 방법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어』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향후 유가의 경서연구에서 문헌학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중국의 문헌과 문헌학

중국은 역대로 문헌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헌이 풍부한 나

2) 이동철, 「한국 문헌학의 발전방향 - 고전정리의 관점에서」, 2010.6.12. 『충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3) 2023년 한국경학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김도일 교수는 우리나라 학계의 경전연구에서 문헌학적 방법론이 많이 수용되지 않은 것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며 의리지학의 성행만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 관점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나는 의리지학의 중시가 문헌학에 대한 관심을 적게 갖도록 만들었다는 점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라에 속한다. 서한(西漢) 초기에 13,269권의 국가장서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청대에 이루어진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총목(總目)과 존목(存目)에 따르면 당시의 국가 장서량이 172,860권에 이르렀다고 한다.⁴⁾ 여기에는 개인이 소장한 책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기에 실제 문헌의 양이 얼마나 되었을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진시황(秦始皇) 때의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비롯하여 중국에서 있었던 여러 차례의 대규모 문헌 소실의 역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만들어지고 유통된 문헌의 양은 훨씬 방대하였을 것이다.⁵⁾

중국에서 문헌의 기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완전한 문자 체계인 갑골문(甲骨文)이 B.C.13~15세기에 이미 있었고 또 한자의 기원이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라고 한 것에 근거할 때 그것이 매우 이른 시기인 것이 분명하다. 『상서(尙書)』에는 문헌의 기원과 관련된 다음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1) 당신들도 알다시피, 상(商)나라 선조에게는 사적(冊)과 전적(典)이 있었기에 상나라가 하(夏)나라의 명(命)을 바꿀 수 있었다.⁶⁾ 「다사(多士)」

여기에서 말하는 ‘책(冊)’은 죽간의 묶음을 의미하며, ‘전(典)’은 책을 두 손으로 받든 모양으로 중요한 전적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위 구절은,

4) 서원남, 『중국문화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2005, 제이앤씨, 20~23쪽

5) 중국은 2022년 7월 중국국립판본관(中國國家板本館)을 준공했다. 과거 사고(四庫)의 체계를 따라 중앙본관인 베이징의 문한각(文瀚閣)과 시안본관 문제각(文濟閣), 항저우본관 문윤각(文潤閣), 광저우본관 문심각(文沁閣)을 각각 개관하였으며, 고서적 등 2,400만 건의 판본을 소장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의 문헌을 수집, 정리, 연구, 전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는 것이다. <https://www.cnapc.cn/>

6) 惟爾知，惟殷先人有冊有典，殷革夏命。

기원전 17세기 전후인 하나라와 상나라의 교체기에 이미 상당수의 전적이 있었고 그것이 기존의 나라를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 된다. 물론 이 구절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라 때 이미 상당한 문헌이 있었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전해지는 ‘문헌(文獻)’이라는 말은 문헌의 출현보다 훨씬 후대인 공자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다. 공자는 중국 고대문화 혹은 문헌의 집대성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민간에 유행하던 시가와 국가 공식 행사의 의전에 쓰이던 노래를 모아 『시경(詩經)』을 편하였다. 또 노(魯)나라의 역사서인 『춘추(春秋)』를 직접 저술하기도 하였다. 공자는 젊은 시절 천자가 사는 주(周)나라의 수도 낙읍(洛邑)의 궁정도서관에서 당시 볼 수 있는 문헌을 대부분 공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자의 제자들에 의해 편찬된 『논어』에는 ‘문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다음과 같은 공자의 언급이 있다.

(2) 하나라의 예에 대해 내가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라의 후예인 기나라의 자료만으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은나라의 예에 대해 내가 말할 수는 있지만 은나라의 후예인 송나라의 자료만으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이는 문헌(文獻)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만약 자료가 충분하다면 내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⁷⁾ 「팔일(八佾)」

과거 『논어』에 주석을 달았던 학자들은 공자가 말한 ‘문헌(文獻)’이 현재 우리가 말하는 문헌과 동일하다고 보지 않았다.⁸⁾ 가령, 한나라 때

7) 夏禮吾能言之，杞不足徵也，殷禮吾能言之，宋不足徵也。文獻不足故也。足則吾能徵之矣。

8) ‘文獻’의 정의 및 그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는 서원남의 앞의 책 11~15쪽을 참고할

의 정현(鄭玄)은 위 구절에 대한 해설에서 ‘文’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獻’에 대해서만 “獻, 猶賢也.”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獻’이 어질다, 혹은 어진 사람을 뜻하는 ‘賢’과 같은 뜻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이는 한 나라 때 유행했던 음운문적 유사성으로 낱말을 풀이하는 성훈(聲訓)의 전통이 반영되어 ‘獻’과 음이 유사한 ‘賢’으로 뜻을 풀이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유가적인 전적이거나 현인들 혹은 현인들의 말을 문헌의 범주로 설명함으로써 문자로 기록된 일반적인 자료나 보통 사람의 생각이 기록된 것은 문헌의 범위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송학의 대표주자인 주희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위 구절의 주석에서 “文은 전적이다. 獻은 어진 사람이다.”⁹⁾라는 설명을 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이 유가경전에 대한 존숭을 주도했던 학자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학자의 인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문헌의 범주를 비교적 좁게 보았던 것만은 부정하기 어려울 듯하다. 송말원초(宋末元初) 마단림(馬端臨: 1254~1323)의 『文獻通考』의 서문에서는 ‘文’을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敘事之文)으로, ‘獻’을 어떤 일에 대해 논의하는 말(論事之言)로 구분하면서, ‘文’ 속에 유교 경전과 역사서 외에 제자백가의 서적도 포함하였으며 ‘獻’에 유생이 아닌 일반인의 글이나 패관(稗官)의 기록도 포함하였다.¹⁰⁾ 이는 문헌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대의 의미에 근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 중국에서 간행된 『漢語大詞典』은 고대 중국어와 현대 중국어의 단어를 모두 수록하고 있는 방대한 사전인데, 여기에는 전통적인 ‘문헌’에 대한 관념이 여전히 남아 있다. ‘文獻’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 항

것.

9) 文, 典籍也. 獻, 賢也.

10) <http://baike.baidu.com/subview/70348/10537160.htm?fr=aladdin>

목으로 “전장, 제도와 관련된 문자 자료와 옛 고사를 많이 알고 익숙한 사람”¹¹⁾이라는 뜻을 제시하고 두 번째 의미 항목에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거나 참고 가치가 있는 도서 자료를 전적으로 가리킨다.”¹²⁾고 언급하였다. 첫 번째 의미 항목은 전통적인 문헌 개념에 가깝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의미 항목은 현대의 정의에 가깝다. 현대사회에서 문헌의 범주는 더욱 확대되고 있어서 단순히 역사적 의미나 연구 가치가 있는 문자로 된 서적뿐만 아니라 지식을 기록하는 일체를 나타낸다. 또 20세기 이후 지하에서 출토된 문헌 자료나 고고학적 유물에 새겨진 언어 자료 또한 문헌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문헌 연구의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문헌학은 문헌과 관련된 여러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며, 결국 고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중국에서의 고전연구는 주로 고적 정리 사업의 하나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중국의 고전연구는 고전의 깊은 의미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이 때문에 고전연구가 문헌학적 연구 성과를 근거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대표적인 고전인 유가 경전과 제자백가 등의 선진(先秦) 시대의 문헌은 진시황의 분서갱유라는 문서 훼손과 이후 한나라 때에 이루어진 문서 복원의 역사를 거쳐 우리에게 전해졌다. 따라서 문헌으로서의 완성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전통적인 문헌학에는 문자학(혹은 한자학), 훈고학, 목록학, 판본학, 교감학, 고증학, 주석학 등이 포함된다. 물론 유가 경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학 연구도 문헌학의 범주 속에 포함될 수 있다. 문자학은 한자의 기원과 발전과정, 그리고 그 의미의 변천을 연구하는 분야

11) 有關典章制度的文字資料和多聞熟悉掌故的人。

12) 專指有歷史價值或參考價值的圖書資料。

이며, 훈고학은 단어와 장구의 의미를 탐구하는 분야이다. 『논어』의 경우 초기 주석서인 『논어집해(論語集解)』가 『논어』에 대한 훈고학적 성과를 반영한 책이다. 목록학은 도서의 목록을 분류하고 모아놓은 서적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문헌의 편찬과정이나 전래 과정 등을 파악할 때 도움이 된다. 판본학은 다양한 판본의 특성과 형성 및 판본 사이의 차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교감학의 경우 다양한 판본의 대조 등을 통해 문헌의 오류를 검증하여 가장 합당한 문헌의 모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학문이다. 또한 고증학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문헌학이 종합되어 문헌의 형식과 내용 모두를 실증하는 학문으로 청나라 때 꽃피웠다. 주석학은 위에서 언급한 문헌학 성과를 바탕으로 고전 원전에 대하여 행하는 주석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문헌학이 종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말 유가경전 13경을 모두 편찬한 완원(阮元)의 13경주소 편찬 사업이 여기에 속한다.

3. 『논어』 연구에 반영된 문헌학

문헌학은 고전학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고전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학문 분야인 철학, 역사학, 문학 등에서도 중요하다. 문헌학이 모든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분야라는 말이다. 이제 『논어』의 사례를 들어 경전 연구에 있어서 문헌학적 성과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논어』의 편찬 시기

여러 판본에 대한 인식과 문헌 내부의 언어에 대한 분석, 그리고 『논

어』의 전래 과정을 고려할 때, 『논어』는 어느 한 시기에 편찬되지 않았다. 『논어』의 편찬 시기는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이(學而)」에서 「향당(鄉黨)」에 이르는 상십편(上十篇)은 대체로 전국(戰國) 시대 초기에 편찬되었고, 「선진(先進)」에서 「요왈(堯曰)」에 이르는 하십편(下十篇)은 『맹자(孟子)』보다 늦은 전국 시대 말기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

하십편 내에서도 제11편에서 제15편까지의 앞 5편과 제16편에서 제20편에까지의 뒤 5편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가령, 앞 5편에서는 공자의 말을 기록할 때 ‘子曰’이라고 시작하는데 뒤 5편 중 「계씨(季氏)」와 「미자(微子)」에는 모두 ‘孔子曰’로 시작하고 있고, 「자장(子張)」에서는 ‘仲尼曰’이라고 한 곳이 있다. ‘孔子曰’, ‘仲尼曰’은 ‘子曰’에 비해 친밀감과 존경심이 떨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공자로부터 시대가 더 떨어진 때의 기록이라고 추정한다.

이를 통해, 『논어』의 편찬에 대해 다음의 결론을 얻게 되었다. 상론은 공자 사후 그 제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가장 먼저 편찬된 것이다. 하론 중 제11편에서 제15편에 이르는 부분은 일종의 속편으로 증자가 죽은 후 공자 제자의 제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하론 중 마지막 후 5편은 맹자 때 혹은 맹자 사후인 전국 말기에 학자들에 의해 불확실한 자료들이 추가된 상태로 편찬된 것이다. 이를 통해 『논어』가 하나의 학파에 의해 일관된 관점에서 편찬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파벌들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¹⁴⁾

13) 이는 아래에 이어지는 청대 최술(崔述)의 주장에서 출발한다.

14) 이강재의 『논어-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조화』 “제3장 『논어』의 명칭과 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 2023년 한국경학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김도일 교수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편찬 시기의 구질 사이에서 어떤 유의미한 사상적 혹은 개념적 차이를 발견할 것인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는 여기에서 언급한 문헌의 편찬 과정과 별개의 문제로 향후 연구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은 청나라 말기 최술(崔述)이 『수사고신록(洙泗考信錄)』, 『수사고신여록(洙泗考信餘錄)』 및 「논어여설(論語餘說)」에서 제기한 것인데, 현대 胡志奎의 『논어변증(論語辨證)』에도 잘 설명되어 있다. H. G. Creel 역시 『공자 인간과 신화』에서 이 견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 김학주 편저 『논어』의 해제에서 최술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최술의 연구 이후 현재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은 없는 듯하다.

또한 최술은 『논어』의 편장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부분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논어여설」에서 “『논어』 편장에서 의심나는 부분을 가려낸다.”라는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고, 『논어』의 마지막 5편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을 구절별로 논의하고 있다.¹⁵⁾

(3) 『논어』의 뒤의 5편에서 「자장(子張)」만이 제자들의 말을 기록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것이 없고 「계씨(季氏)」, 「양화(陽貨)」, 「미자(微子)」, 「요왈(堯曰)」 4편에는 의심나는 것이 대단히 많다. 앞의 15편 끝의 한두 장에도 어색한 것이 끼어 있다. 아마 지금 판본이 한나라 초기의 제나라와 노나라에서 전해지던 옛 판본이 아니고 장우(張禹)가 모아서 정리한 판본이라 그런 것 같다.

최술은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4편에 대해 의심스러운 정도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구분하면서 학자들이 문헌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것, 6장 2절

사실을 의심할 만한 것, 6장

15) 이곳의 최술의 견해는 『논어 관련 자료집』(1992년 서울대 중문과 경서연구 강의 자료집)에서 재인용함.

의미는 의심나지 않으나 문체가 어색한 것, 9장
 대단히 문체가 의심스러운 것, 2장
 문인들이 공자(孔子) 앞에서 ‘夫子’라고 칭하여 사실을 의심할 만한
 것
 의미나 문체가 모두 의심할 만한 것이 없는 것, 20장
 조금 의심되나 의미에 하자가 없는 것, 2장
 사실을 믿을 만한 것, 4장 7절

이처럼 청말에 연구된 판본학과 고증학적 연구는 『논어』 전편을 하나의 편찬 시기로 보면서 경전 내의 모든 구절을 공자의 언설로 보았던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논어』를 문헌학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였다. 또 이로 인하여 『논어』 연구의 다양한 시각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2) 관중(管仲)에 대한 평가와 삼론(三論)

『논어』에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많이 들어있다. 이 중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桓公)이 패자가 되도록 도왔던 관중(管仲)에 대한 평가는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가령, 제3편 「팔일(八佾)」에서는 “관중의 그릇은 작구나!”¹⁶⁾라고 하면서, 관중은 검소하지도 않고 예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혹평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14편 「헌문(憲問)」에서는 “만약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랑캐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했을 것이다.”¹⁷⁾라고 관중의 공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의 인함이며, 그의 인함이어.”¹⁸⁾라고 극찬을 하고 있다. 이처럼 관중에 대한

16) 管仲之器小哉.

17) 微管仲，吾其被髮左衽矣.

18) 如其仁，如其仁.

평가가 『논어』에서 극단적으로 상이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 그동안 공자가 일관성 없다는 비판을 하거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억지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유가에서 관중과 제 환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맹자는 “중니의 제자 중에 제 환공과 진 문공의 일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¹⁹⁾라고 하여 춘추시대의 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으며, 환공의 재상이었던 관중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4) 공손추가 물었다. “선생님께서 제나라의 요직을 맡으신다면 관중과 안자가 세웠던 공적을 다시 이룩하실 수 있으십니까?” 맹자는 이에 답하였다. “그대는 정말 제나라 사람이구나. 관중과 안자만을 알고 있으니. …… 관중은 군주의 신임을 얻어 나라 국사를 그렇게 멋대로 하였고 국정을 맡아 그렇게 오래 하였는데도 그의 공적은 그토록 변변치 않은데…”²⁰⁾ 「공손추상(公孫丑上)」

공자의 사상을 가장 잘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는 맹자에게 있어서 관중은 하찮은 인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관중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논어』에 들어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관중에 대한 「헌문」의 이야기가 후대에 『논어』 편찬과정에서 제나라 출신 제자들의 역할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위에서 보듯이 관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던 공손추에 대해 맹자가 “그대는 제나라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즉 『논어』의 편찬과정에서 여러 지역 출신의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이

19) 「양혜왕상(梁惠王上)」 仲尼之徒無道桓文之事者

20) 公孫丑問曰, “夫子當路於齊, 管仲晏子之功, 可復許乎?” 孟子曰, “子誠齊人也. 知管仲晏子而已矣. …… 管仲得君如彼其專也, 行乎國政如彼其久也, 功烈如彼其卑也.”

때문에 『논어』 앞과 뒤의 내용상에 모순이 보이는 것이다. 즉 노나라 출신 학자들은 오패(五霸)나 그를 도왔던 관중 같은 사람을 언급하기조차 싫어한 것에 반하여 제나라 출신 학자들은 자국 출신인 관중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나라 때 『논어』의 전래 과정에서 처음 노나라의 『논어』인 노론(魯論)과 제나라의 『논어』인 제론(齊論)이 함께 통행 되었던 것과도 관련된 것이다.²¹⁾

노론과 제론의 기술 방식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문헌학적 연구에 의하면, 제14편 「헌문」 중 16, 17, 18장에서 제 환공과 관중을 찬양하는 글은 제론에서 들어간 것이고²²⁾, 또 「계씨(季氏)」, 「양화(陽貨)」, 「요왈(堯曰)」에서 ‘子曰’이라고 하지 않고 ‘孔子曰’이라고 한 것은 공자의 제자에 의해 기술된 것이 아니라 제론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옛날의 『논어』인 ‘고론(古論)’을 포함하면 더 복잡한 양상이 나타난다. 고론과 노론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면, 노론에서는 가차자(假借字)를 많이 쓰고 고론에서는 본자(本字)를 많이 쓴다. 가령, 제5편 「공야장(公冶長)」의 “千乘之國, 可使治其賦也.(천승의 나라에서는 그 군대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구절에 쓰인 ‘賦’자를, 노론에서는 ‘傅’라고 쓰고 고론에서는 ‘賦’라고 했다.²³⁾ 이처럼 제론, 노론, 고론이라는 세 가지 『논어』의 차이점에 대해 문헌학적 검토가 들어가야 올바른 『논어』 이해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²⁴⁾

21) 2023년 한국경학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김도일 교수는, 관중에 대한 평가에서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 공자가 아직 체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와, 관중이 비록 백성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 인의 공(仁之功)을 세웠지만 여전히 인한 사람은 아니라는 주희의 관점을 소개하였다. 본고에서 다루는 문헌학적 검토와 별개로, 『논어』에 나타난 관중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한 견해이다.

22) 袁枚의 『小倉山房文集』 권24. 林昶乾의 『論語導讀』에서 재인용.

23) 이 세 가지 『논어』가 『논어』 편집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논의는 린령첸(林昶乾)의 『논어도독(論語導讀)』을 참고할 것. 앞의 『논어』 관련 자료집』 23쪽에서 재인용.

3) 전래된 『논어』의 판본

국내에서 『논어』를 연구할 때 주희 『논어집주』의 경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선 시대에 주희의 존숭으로 인하여 집주의 출판이 많았고, 특히 정조(正祖) 정유년(丁酉年, 1777년)에 금속활자 정유자(丁酉字)로 간행한 내각본(內閣本) 『논어집주대전(論語集註大全)』을 선호하였다. 현재 전해지는 『논어』의 판본이 다양한데, 그 중 집주본을 저본으로 삼을 근거는 없다. 집주본은 송대 형병(邢昺)이 편찬한 『論語注疏』의 경문을 그대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이 경문을 저본으로 삼는다면 형병본을 저본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주희의 성리학적 『논어』 이해를 중시하였기에 문헌학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1966년 타이완(臺灣)의 예문인서관(藝文印書館)에서 영인 출판한 무구비재논어집성(無求備齋論語集成)에는 매우 다양한 『논어』 판본이 수록되어 있어서 『논어』의 판본 비교에 도움이 된다. 또 청말의 지부족재총서(知不足齋叢書)나 고일총서(古逸叢書) 등에도 판본 연구에 유용한 『논어』 판본이 여러 가지 수록되어 있다. 판본 비교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漢石經, 唐石經, 宋石經에 잔본으로 남아있는 『논어』 구절, 知不足齋 皇侃本, 懷德堂 皇侃本, 正平本, 天文本, 元刊本, 津藩本, 集註本, 閩本, 北監本, 毛本, 高麗本 등이 있다. 또한 여러 책에 흩어져 보이는 『논어』 구절을 모아놓거나 원문을 교감하는 과정에서 그 기록을 남긴 것들도 판본 연구에 도움이 된다. 가령, 적호(翟灝)의 『사서고이(四書考異)』, 진전(陳鱣)의 『논어고훈(論語古訓)』, 풍등부(馮登府)의 『논어이

24) 노론의 문제에 대해 이강재 외, 「『論語正義』에 나타난 노론」(2018.5 『인문논총』 제 75권 제2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을 참고할 것.

문고증(論語異文考證)』 그리고 『당석경논어고정(唐石經論語考正)』, 『논어고훈(論語古訓)』, 『논어교감기(論語校勘記)』, 『천문본교감기(天文本校勘記)』, 『논어의소교감기(論語義疏校勘記)』²⁵⁾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볼 때, 형병의 『논어주소』를 기준으로 할 때 모두 15,919자로 이루어져 있는 『논어』 경문의 경우, 장마다 판본별로 차이가 없는 구절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학파에서 정본으로 정한 판본만을 기준으로 『논어』를 연구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판본에 대한 비교와 연구는 고대중국어의 문법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다음 예문을 보자.

- (5) 宰我問曰，仁者雖告之曰，井有仁焉，其從之也。（「옹야(雍也)」）
 재아가 “인한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이 그에게 ‘우물 속에 인자가 있다’라고 거짓을 말한다면 그 말을 믿고 우물 속으로 따라 들어가겠습니까?”라고 물었다.
- (6) 克伐怨欲，不行焉，可以爲仁矣。（「헌문(憲問)」）
 이기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고, 원망하고, 욕심을 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위 두 문장은 양보권(楊伯峻)의 『논어역주(論語譯注)』는 물론 대부분의 국내외 역주서에서 의문문으로 다루고 있는 문장이다. 사용된 어휘만으로 볼 때 의문문임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도 전후 문맥에 따라 해석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고대중국어 문법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위 문장의 끝에 쓰인 어기사 ‘也’와 ‘矣’에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위의 두 예문을 제외하고 『논어』에 출현한 ‘也’와 ‘矣’는 모두 평서문의 어기를 나타내는 기

25) 자세한 판본과 교감기록 등에 대한 소개는 이강재, 「논어 상십편의 해석에 대한 연구」 참고.

능을 하는데 이것이 의문문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한다면, 한문으로 된 고전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이 두 어기사를 만났을 때 혼란을 겪게 된다. 또 의문사나 의문어기사 중 어느 것도 쓰이지 않은 문장이 의문문이라면 이 또한 혼란을 줄 수 있다. 현대 중국어의 경우 문장의 높낮이 등의 어조(語調)를 통해 의문사 없이 의문문을 쓸 수 있지만, 고대 중국어로 된 문장에서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면 고문헌의 해독에서 곤란을 겪을 때가 많게 된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의 다른 판본을 조사해보면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²⁶⁾ 즉 (5)의 경우, 황간(皇侃)의 『논어의소(論語義疏)』에서는 ‘也’ 대신 ‘與’를 쓰고 있는데, 이 ‘與’는 약한 의문의 어기나 확인을 묻는 의문문에 쓰이는 어기사라는 점에서 (5)의 문장이 의문문으로 해석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6)의 경우에도, 『사기(史記)』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과 『삼국지(三國志)·종리목전(鍾離牧傳)』에서 이 문장을 인용하면서 “可以爲仁乎”라고 하였는데²⁷⁾, ‘乎’는 강한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말이므로 이 문장이 의문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논어』 판본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문의 문법적인 문제가 여러 판본의 검토를 통해 교감했을 때 새롭게 이해가 될 수 있다.

4) 공자와 『주역』의 관계

전통적으로 공자가 『주역』에서 ‘십익(十翼)’이라 부르는 서괘전(序卦

26) 여기에서 논하는 판본상의 차이와 문법적인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강재, 「의문문 문말어기사의 기능 및 특성 연구 - 『논어』를 중심으로」(『중국문학』 제24집, 1995, 한국중국어문학회) 참고.

27) 이는 정수덕(程樹德)의 『논어집석(論語集釋)』(1990, 中華書局)에서 재인용한 것임.

傳), 계사전(繫辭傳), 문언전(文言傳) 등의 열 가지 '전(傳)'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주역』에 '子曰'이라고 인용된 것에서 출발한 인식이다. 또 『논어』에는 공자가 직접 『주역』을 언급한 다음 구절이 있다.

(7)子曰,“加我數年,五十以學易,可以無大過矣.”(「술이(述而)」)

이 구절은 보통 “나에게 몇 년의 시간을 더 주어 나이 50이 될 때까지 계속 『주역』을 공부할 수 있다면 큰 잘못은 없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한다. 이에 의할 때, 공자는 나이 50이 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였고, 『주역』이라는 책을 매우 중시했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대화나 가르침을 대체로 신뢰해 왔던 전통적인 경전 이해에 의한다면, 『주역』 중시에 대한 공자의 선언적 의미를 갖는 구절이다. 또한 공자가 『주역』을 열심히 학습하여 책을 제본했던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위편 삼절(韋編三絕)의 고사가 있다. 이 역시 공자의 『주역』에 대한 선호도를 방증하는 것으로도 인용되지만, 위작 논란이 있는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나온다는 것이 문제이다.

『주역』을 점을 치는 데 쓰는 책으로 보든 아니면 의리를 담고 있는 책으로 보든, 『주역』의 내용이 『논어』의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 때문에 『논어』의 이 구절이 정말 공자의 이야기일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한 문헌학적 검토를 통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만나게 된다.²⁸⁾

공자가 『주역』을 지었다는 것은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예문지

28) 아래에서 논의하는 것 외에 이 구절의 '加', '五十'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설이 있으며, '易'자를 쉽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강재, 『논어 상십편의 해석에 대한 연구』를 참고. 여기서는 『주역』에 대한 문제로 한정해서 논하고자 한다.

(藝文志)』에 처음 등장하며, 『논어집해』나 『논어집주』의 경우 모두 이 ‘易’자를 『주역』으로 해석한다. 공자와 『주역』의 관계에 대해 처음 의문을 제기한 것은 송대 구양수(歐陽修)의 「易童子問」에서 시작되며 이후 청대 문헌학의 전성시대에 와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에 앞서 당대(唐代) 육덕명(陸德明)의 『경전석문(經典釋文)』에서 “學易은 원래의 글자대로 보아야 한다. 노나라 『논어』(魯論)에서는 ‘易’을 ‘亦’으로 읽었는데, 여기에서는 옛날 『논어』(古論)를 따른다.”²⁹⁾라는 말이 의문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청대 혜동(惠棟)은 『구경고의(九經古義)』에서 “외황령고표비(外黃令高彪碑)에서 ‘편안히 욕심 없이 요약함을 지켰으며, 50이 되어서도 배웠다’라 하였는데, 이는 노나라 『논어』를 따른 것으로 ‘亦’자를 아래에 이어 읽은 것이다.”³⁰⁾라 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노나라의 『논어』에는 “加我數年，五十以學，亦可以無大過矣.”로 쓰여있으며, “나에게 몇 년의 시간을 더 주어 끝까지 계속 학문을 할 수 있다면 큰 잘못은 없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된다. 공자가 『주역』을 편찬한 사실이 『논어』에 보이는 것은 단지 이 한 곳이니 만일 노나라 『논어』와 같다면 과거 학자들의 말처럼 공자는 『주역』을 편찬한 적이 없게 된다. 즉, ‘易’자를 ‘亦’으로 쓰인 문헌의 존재와 『논어』가 나온 산둥 지방의 방언의 용례에 근거해서 ‘易’자를 사이에 두고 끊어 읽기를 한다면, 공자가 『주역』을 중시했다는 것의 근거가 없어지며 그가 『주역』의 여러 전(傳)을 지었다는 것은 더더욱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자와 『주역』의 관계를 설명한 수많은 철학적 논저들은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³¹⁾ 여기에서 우리는 경전 연구에서 문헌학적 연구

29) 學易如字。魯讀易爲亦，今從古。

30) 外黃令高彪碑，恬虛守約，五十以數，此從魯論，亦字連下讀也。

31) 아마도 한대에는 공자가 『주역』을 중시하였다거나 『주역』의 전(傳)을 지었다는 견해가 상당히 퍼져 있었다는 점만은 분명한 듯하다. 공자와 『주역』의 관계에 대한

가 왜 중요한 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만나게 된다.

5) 문자학 연구 성과의 반영

문자학, 혹은 한자학은 한자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한자의 발생과 자형의 변천, 그리고 한자의 의미 변화 등을 다루는 학문 분야이다. 넓은 의미의 문자학에는 한자를 다루는 모든 학문 분야를 말하여, 음운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인 성운학(聲韻學), 고대의 의미를 다루는 훈고학(訓詁學) 등을 포괄한다. 사실 동아시아의 고전문헌은 역사가 오래되어 고전문헌에 쓰인 한자의 형, 음, 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가 적지 않기 때문에 문헌 연구를 위해서는 성운학과 훈고학을 포함한 광의의 문자학이 필요하다.

청대의 유월(俞樾)은 고증학적 연구 방법에 의해 문헌을 탐구한 학자인데, 그의 『고서의의거례(古書疑義舉例)』와 『군경평의(群經平議)』는 이 방면의 탁월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서의의거례』에는 유가경전의 각 구절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부분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논어』에 대해서는 上下文異字同義例, 錯綜成文例, 兩語似平而實側例, 一人之辭而加曰字例, 上下文變換虛字例, 助語用不字例, 也邪通用例, 雖唯通用例, 古書連及之詞例, 上下兩句互誤例, 上下兩句易置例, 分章錯誤例, 誤讀夫字例 등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유월이 上下文變換虛字例(위아래 문장에서 허사를 바꾸어 쓴 예)에서 예로 든 구절을 보자.

다양한 논의와 문제점은 황준연, 「공자는 『주역』의 십익(十翼)을 스스로 지었는가?」(2008, 『정신문화연구』)를 참고할 것.

(8) 富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如不可求, 從吾所好. (「술이」)

부유해지는 것이 구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면 말의 채찍을 잡는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하겠지만, 구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것이다.

이 문장에서는 앞 구절에 ‘而’자를 쓰고 뒤 구절에 ‘如’자를 썼다. 일반적으로 ‘而’는 말을 연결해 주는 허사로서 ‘而’의 앞뒤에 술어 성분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명사인 ‘富’가 왔고 이 때문에 해석상의 어려운 점이 있었다. 유월은 원래 앞에 쓰인 ‘而’도 뒤에 쓰인 ‘如’와 마찬가지로 ‘만약’이라는 뜻임에도 앞뒤 문장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르게 쓴 것이라 주장한다. 이후 중국의 허사 연구자들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而’에 ‘如’의 뜻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유월은 「학이」의 “有朋自遠方來”라는 구절을 설명하면서, 하안(何晏) 『논어집해』에서 포함(包咸)이 “같은 문하에서 공부한 사이를 ‘朋’이라 한다(同門曰朋).”라고 한 말을 이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9) 『經典釋文』에서 “有는 友라고도 쓴다.”라고 하였다. 阮元的 『校勘記』에서는 『白虎通』 「辟雍篇」에서 이 문장을 “朋友自遠方來”라고 인용하였다고 하였다. …… 지금 내가 살펴보건대, 『說文解字』 「方部」에서, “方은 나란한 배다. 두 배의 모양을 본뜻 것인데, 머리 부분을 묶어놓은 모양이 생략된 형태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方에는 나란하다는 뜻이 있다. 『淮南子』 「汜論篇」에 “나무를 뚫고 판자를 나란히 하였다(方版).”라는 말이 있는데, 高誘의 注에서는 “方은 나란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이는 ‘方’과 ‘竝’이 같은 뜻이며 “友朋自遠方來”는 “友朋自遠竝來”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友’라고 부르고 ‘朋’이라고 불렀으니 한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竝來”라고 한 것이다. 그렇

다면, ‘有’자가 ‘友’로 써야 한다는 것은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학자들이 잘못하여 ‘遠方’ 두 글자를 이어진 문장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³²⁾

역대로 “有朋自遠方來”의 해석은 “有+朋+自+遠方+來” “有+朋+自遠+方來” 등의 방식으로 매우 다양하게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유월은 다른 판본에서 ‘有’가 ‘友’라고 쓰였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友’, ‘朋’을 구분한 후 ‘友’와 ‘朋’이 합하여 복수가 되므로 뒤의 ‘方’은 ‘並’의 뜻으로 해석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有’가 ‘友’로 쓰이고 ‘方’이 ‘並’의 뜻으로 쓰인 다른 고서의 예를 근거로 들었고 또 이들은 상고음이 동음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가차되어 쓰일 가능성은 충분하다.³³⁾ 물론 고대중국어의 언어적 특징에 근거할 때, ‘友朋’이 쓰였다고 하여 반드시 동사 앞에 행위의 주체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내기 위한 ‘並’자를 쓸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유월의 견해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곳 외에 ‘友朋’의 용례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다만 유월이 언어적인 특징에 근거하고 다양한 판본과 문헌적 증거를 문자학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면서 고전을 해독하고자 했던 연구 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³⁴⁾

32) 釋文曰，有或作友。阮氏校勘記，據白虎通辟雍篇，引此文作朋友自遠方來。……今按說文方部，方，併船也，象兩舟省總頭形。故方卽有並義。淮南汜論篇曰，乃爲窰木方版。高誘注曰，方，並也。……是方並同義。友朋自遠方來，猶云友朋自遠並來。曰友曰朋，明非一人，故曰，並來。然則有之當作友，尋繹本文，卽可見矣。今學者，誤以遠方二字連文，非是。

33) 유월의 『논어평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강재, 김효신 역저, 『고증학자는 논어를 어떻게 읽었나 - 유월 논어평의 역해』(2006, 학고방)를 참고할 것.

34) 혹자는 『논어』의 ‘有子曰’로 나오는 구절을 ‘又子曰’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 또한 위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한 사례이다. 이 경우 『논어』의 편찬에 유약의 제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되어 공자 사후의 문인들의 관계 및 『논어』의 편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진다. 다만, 나는 ‘又子曰’의 용례가 고전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又子曰’보다는 당연히 ‘子曰’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有子曰’을 ‘又子曰’

4. 고증학적 학문 전통과 동아시아 고전의 이해

나는 위에서 동아시아의 고전문헌, 특히 경전 연구에서 문헌학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논어』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사실 경전 연구에서 문헌학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중요성’이라는 말보다는 문헌학적 성과를 무시하는 경전 연구는 그 자체로서 성립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중국은 단어와 구절의 의미 풀이를 중심으로 한 한학(漢學), 훈고학의 시대, 의리를 중시했던 송학(宋學)의 시대를 거쳐 철저한 문헌학적 검토와 실증을 통해 학문을 해나가는 청학(淸學), 즉 고증학의 시대에 이르러 문헌학이 꽃피우게 된다. 모든 학문은 그 나름대로 시대성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고증학은 학문의 엄밀성이라는 점에서 뛰어난 면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실증성,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시대의 학문 정신으로 대두되었던 청대의 고증학은 송명리학(宋明理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분석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청말 양계초(梁啓超)는 『清代學術概論』에서 고증학의 대표주자인 왕념손, 왕인지 두 부자의 학술 연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첫째는 주의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흐릿한 눈으로 쉽게 간과해 버릴 곳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특별히 연구해야 할 점을 찾아내었으니 이른바 “글을 읽고 행간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스스로를 비우는 것이다. 주의 깊게 관찰한 후 의문이 생겼을 경우 일시적인 주관적 감상으로 가볍게 판단을 내리기 쉬운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오직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매우 충실한 연구를 하였다. 셋째

曰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는 논리를 세우는 것이다. 연구는 산만하고 체계가 없는 것이 아니며, 먼저 하나의 가설을 세워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넷째는 증거를 찾는 것이다. 하나의 가설을 세웠더라도 절대로 곧 정론이라 믿어서는 안 되며, 널리 증거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같은 종류의 사실을 참조하여 다 합치되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단안을 내리는 것이다. 여섯째는 추론하는 것이다. 여러 번 귀납적 연구를 거친 후에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일단 결론을 얻고 나면 같은 종류의 다른 사항에 추론하여도 무방하다.³⁵⁾ 이와 같은 학술연구 방법이 중국의 문헌 연구에 큰 공헌을 하였고, 그 결과 청대에 문헌학이 중요한 학문으로 부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필자는 『논어』를 중심으로 고전을 연구하면서 우리 시대에 맞는 고전연구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음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³⁶⁾

첫째, “守株待兔”.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린다는 이 고사는 『한비자』에서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옛것을 고수하는 공자와 맹자 등 유가를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다. 필자는 이 구절을 바뀐 세상에 맞는 고전, 『논어』를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인용한다. 미래 지향적이어야 할 세상에서 과거 지향적이고 전통을 고수하는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고전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경전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경전의 과거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며

35) 이강재, 김효신 역서, 『고증학자는 논어를 어떻게 읽었나』에서 재인용.

36) 이는 이강재, 「나는 어떤 논어책을 읽는가?」(2011, 한국경학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중 앞의 네 가지 원칙은 나의 『논어처럼 이끌어라』(2023, 21세기북스)에서도 ‘왜’, ‘지금’, ‘여기에서’ 공자와 『논어』를 읽을 것인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원칙으로 설명한 바 있다.

현대적 의미와 그것의 미래 지향적 의미를 밝혀내고 이를 통해 세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필자는 경전 연구는 궁극적으로 경세학(經世學)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盡信書, 則不如無書”. 『맹자』에 나오는 이 말은, 『서경』의 말을 모두 믿을 바에는 『서경』이 아예 없는 편이 좋다는 말이다. 이처럼 『논어』를 비롯한 고전을 모두 믿고 따라야 한다면 그 고전이 세상에 없는 편이 나을 것이다. 『논어』와 공자의 역사성을 인정한 범위 내에서 그 글을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역사성에 근거하여 『논어』를 읽고 풀어내야 할 것이다.

셋째, “對牛彈琴”과 “對, 牛彈琴”. 어디에서 끊어 읽을 것인지에 따라 소가 연주를 할 수도 있고 소에게 연주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구두점 하나부터 시작해서 문헌에 담긴 모든 내용을 열린 마음으로 볼 때 진정으로 그 내면과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인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미 이루어진 문헌학적 성취를 반영하여 경전을 해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百家爭鳴”. 상당수의 학자가 많은 고전과 관련된 연구와 출판에 매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없이 출판되는 경전, 『논어』 서적 속에서 자신이 행하는 작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교수, 연구자로서 책을 내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라면 혹은 자기만족을 위한 연구라면 오히려 책을 만들어 환경을 파괴하는 반인문학적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백가쟁명의 상황에서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경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진지한 성찰과 과거의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돌아보기가 필요하다.

다섯째, “先行其言而後從之”. 먼저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실천한 다음 말이 뒤따라야 한다고 공자가 말한 바 있다. 나는 지금까지 번역과

해석을 중시해 왔지만, 철학 넓게는 인문학적 내용은 번역될 수 없다는 말도 있다. 고전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현대적 의미를 밝히고 설명하려는 작업은 완벽하거나 절대적 옳음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번역이나 해설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맺음말

우리나라의 학문, 특히 인문학은 아직도 서구의 학문 중심으로 돌아간다. 한국학에 대한 중시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문학, 역사, 철학 진 분야를 아울러 보면 서구 중심의 학문은 여전하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문화와 학술적인 점, 그리고 문명사적인 측면에서도 강조되어야 할 여러 이유가 있다. 이 시대의 동아시아의 고전연구, 경전 연구는 우리 시대에 알맞은 시대적 사명을 찾아가는 데 중요한 준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미래의 동아시아 시대를 맞이하는 전환기의 이 지역인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동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서구 편향적인 학문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 학계의 현실에서, 동아시아의 고전연구는 우리의 사고에 길항작용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의 고전연구, 유가 경전, 문헌 연구는 갈수록 중요시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 분야의 연구는 여러 다른 학문 분야 속에 파편적으로 존재하면서 어느 분과 학문에서도 주류로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가령 유가 경전 연구는 증문학과, 한문학과, (동양)철학과, (동

양)사학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고전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함에도 어느 분과 학문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거나 중요한 학문으로서 대우받고 있지 못하다. 이는 경전 연구의 대상언어가 갖는 난해함도 있지만, 경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경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연유한다. 또 문헌 연구로서의 경전 연구가 부족한 것도 있다. 이 글에서 『논어』의 사례만을 단편적으로 살펴보았지만, 모든 유가 경전 연구에서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참고문헌〉

- (淸) 程樹德, 『論語集釋』(1990, 中華書局).
- (淸) 崔述, 『洙泗考信錄』(이재하 외 옮김, 2009, 파주 한길사).
- (淸) 崔述, 『洙泗考信餘錄』(이재하 외 옮김, 2009, 파주 한길사).
- (淸) 俞樾, 『古書疑義舉例五種』(2010, 北京, 中華書局).
- H. G. Creel(1949),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 (이성규 역, 『공자 인간과 신화』, 1983, 서울, 지식산업사).
- 서원남(2005), 『중국문화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제이앤씨.
- 이강재(1994), 「의문문 문말어기사의 기능 및 특성 연구 - 『논어』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24집, 한국중국어문학회.
- (1998), 「논어 상십편의 해석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6), 『논어-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조화』, 파주, 살림출판사.
- , 김효신 역저(2006), 『고증학자는 논어를 어떻게 읽었나 - 유월 논어평의 역해』, 서울, 학교방.
- (2011), 「나는 어떤 논어책을 읽는가?」, 한국경학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 , 이예성(2018), 「『論語正義』에 나타난 노론」, 『인문논총』 제75권 제2호, 서

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3), 『논어처럼 이끌어라』, 파주, 21세기북스.

이동철(2010), 「한국 문헌학의 발전방향 - 고전정리의 관점에서」, 2010.6.12.

『충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林初乾(1978), 「論語導讀」, 『國學導讀叢編』(上), 臺北, 康橋出版事業公司.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編纂(1994),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허성도 편, 『논어 관련 자료집』, 1992년 제1학기 서울대 중문과 경서연구 강의 자료집.

胡志奎(1978), 『論語辨證』,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황준연(2008), 「공자는 周易의 十翼을 스스로 지었는가?」, 『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2호(통권11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baike.baidu.com/subview/70348/10537160.htm?fr=aladdin>

<https://www.cnapc.cn/>

The Study of Confucian Scriptures as Philological Research: Focusing on the Case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Lee, Kangjae *

This article discusses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philological findings into Confucian scripture studies. In China, philology developed during the Qing Dynasty and was reflected in the interpretation and study of the scriptures, whereas domestic studies are mostly semantics-oriented. This article uses the case of the Analects as an example of how philological achievements can be reflected in Confucian scriptural studies. It discusses the different compilation periods of the Analects, the contradictions in the evaluation of GuanZhong(管仲), the versions of the Analects that have been passed dow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ucius and Zhouyi(周易), and the scriptural studies that reflect the results of philological research. It also argues that philological achievements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in East Asian classical studies, especially in the study of the Confucius Analects.

Key Words

Confucius Analects, philology, Analects of Confucius, edition, period of compilation, *GuanZhong*(管仲)

논문접수일: 2023. 12. 10, 심사완료일: 2023. 12. 22, 게재확정일: 2023. 12. 31.

* Professor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 likangqi@snu.ac.kr